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과 내빈들이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새로 낙성한 화계사 국제 선문화체험관. 전통사찰양식과 서양식 인테리어를 활용했다. 사진은 낙성식에 참석한 내빈들이 현판 제막을 하는 모습.



건물 맨 위층에 마련된 국제선원. 여러 스님들이 함께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이다.



외국인스님들이 거주하는 방. 원룸형태로 옷장과 냉장고 등이 갖춰져 있다.

世界一花 가르침 아래 핀 국제수행도량

서울 화계사, 국제 선문화체험관 3월 17일 낙성

국제선원 · 템플스테이 복합기능
3층 규모, 수행공간 · 차담실 갖춰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삼각산 화계사가 외국인스님과 템플스테이 체험객 숙소로 활용될 대규모 시설을 완공,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한 국제도량으로 발돋움했다.

서울 화계사(주지 수암)는 3월 17일 경내에서 600여 사부대중 축하 속에 '국제 선문화체험관 낙성식' 을 거행했다.

이 자리에는 화계사 조실 설정 스님(조계종 총무원장)과 계룡산 무상사 조실 대봉 스님, 불교사회연구소장 주경 스님, LA달마사 주지 정범 스님, 박원순 서울시장, 박겸수 강북구청장 등이 참석했으며, 몽골스님들을 비롯한 외국인스님들이 대거 함께했다.

이번에 낙성한 국제 선문화체험관은 외국인스님들의 거처였던 국제선원과 템플스테이 시설을 함께 모아놓은 건물이다. 앞서 기존 국제선원은 낙후된 시설로 인해 누수가 발생하고, 선원과는 거리가 먼 용도로 지어진 건물이어서 불편함이 많았다.

또한 화계사에는 별도의 템플스테이 시설이 없기 때문에 대적광전을 활용해 템플스테이를 운영해오기도 했다. 화계사는 이를 해결하고자 선문화체험관 건립에 나섰다.

선문화체험관은 총 3층 규모로 지어졌다. 맨 위층은 외국인스님들이 거주하며 함께 정진할 수 있는 선원과 손님을 맞이하는 차담실 등을 갖췄다.

각 방에는 개별 화장실, 옷장, 시스템에어컨 등을 구비했다. 단열을 위해 외벽에만 20㎝에 달하는 단열재를 넣고, 원활한 통풍을 위해 건물 외벽과 복도쪽 벽에 각각 창문을 달았다. 또한 건물 내부에서 포행할 수 있도록 'ㄷ' 자 형태로 건물을 설계했으며, 시각적인 답답함이 없도록 건물 가운데는 통째로 비웠다. 이 때문에 방문을 열고 나오면 바로 산자락과 삼각산의 자연을 감상할 수 있다. 체험관은 외국인스님 10여 명이 거주할 예정이며, 템플스테이 체험객은 30~40명을 수용할 수 있다.

특히 선문화체험관에는 만공선사가 무궁화 꽃에 먹을 찍어 쓴 근화필(槿花筆) '세계일화(世界一花)' 현판이 걸렸다. 이는 수덕사에 있는 것을 그대로 본떠 새로 만든 것으로 세계일화를 강조했던 만공선사와 이를 전 세계에 알린 제자 숭산 스님의 정신을 나타낸 것이다.

이날 화계사 조실 설정 스님은 치사를 통해 "그동안 화계사는 숭산 스님의 인연에 따라 외국인스님들을 위한 도량으로 알려졌지만 마땅한 수행장소가 없어 대적광전 다락방을 사용하는 어려운 시절을 보내기도 했다"면서 "선문화체험관 낙성으로 불성의 꽃을 피우기 위해 '세계일화' 를 주창하셨던 만공선사와 숭산 스님의 가르침이 더 널리 퍼지길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주지 수암 스님은 봉행사에서 "어려움이 많았지만 수많은 불자님들의 기도 공덕으로 선문화체험관을 낙성할 수 있었다. 줄탁동시(啐啄同時)처럼 응집된 기도의 힘과 건립에 힘써주신 관계자분들의 원력이 만났기에 가능했다"며 "점이 모여 선이 되고, 선이 모여 면이 되듯이 화계사는 점으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역사가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축사를 통해 "부처님 가르침과 원효대사의 원융회통, 만공선사의 세계일화 사상이 건물 이름처럼 전 세계에 전파되길 바란다. 국민 한 사람으로서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대중공양과 장애인 복지, 자비나눔 등 화계사 덕분에 강북구는 행복한 지역구가 된다. 선문화체험관 낙성으로 강북구가 세계적인 도시이자 지역으로 거듭나길 기대해본다"고 인사했다.

"화계사는 외국인스님들 출가본사"

화계사 주지 수암 스님



"저는 화계사가 외국인스님들의 출가본사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거 결제에 들어가면 제방선원에서 열심히 정진하고, 해제하면 돌아와 언제든지 편히 쉬라고 당부하죠. 외국인스님들은 숭산 스님과 인연 맺은 곳이기에 열악한 환경에서도 감내하며 생활했는데 개선된 시설에 다들 편안해하니 보람을 느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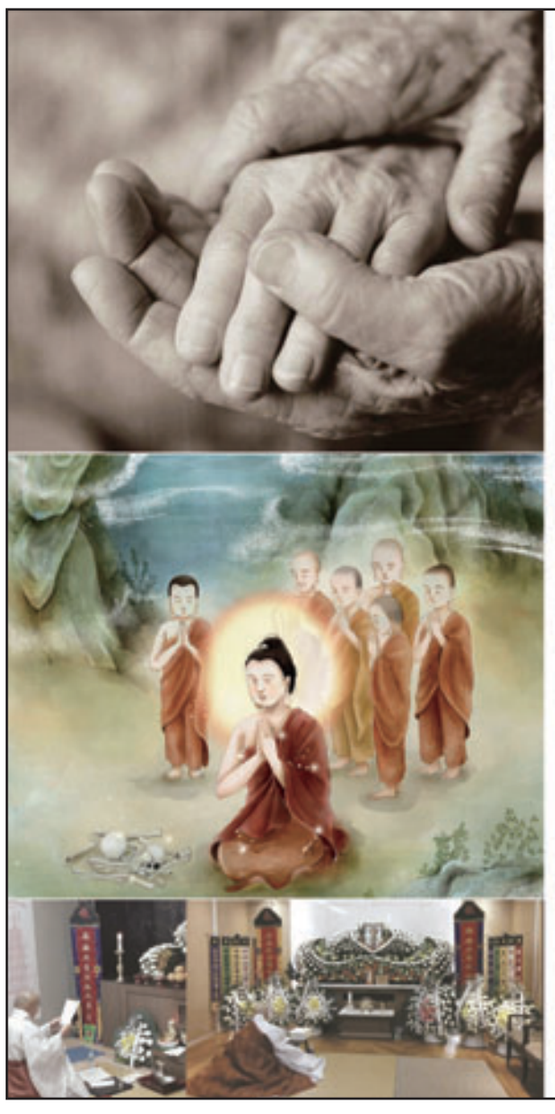
화계사 주지 수암 스님은 오랫동안 심혈을 기울인 국제 선문화체험관 낙성의 가장 큰 의미로 '외국인스님들의 편의성 향상' 을 꼽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동안 화계사는 동국대 백상원으로 활용되던 건물을 인수해 외국인스님들 거처로 사용했지만 노후화된 시설을 쉬이 해결하진 못했다. 다행히 화계사는 선문화체험관을 지으며 해묵은 과제를 털어냈다.

수암 스님은 "앞으로 무상사 스님들과 협의해 이곳을 총괄할 선원장을 임명하고, 방부를 들일 때 자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주지 개입을 최소화하고, 외국인스님들의 자율성을 높일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한 스님은 체험관이 템플스테이 시설 기능까지 갖춘 만큼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이 느끼는 질의 변화도 기대했다.

수암 스님은 "기존에는 대적광전을 템플스테이 숙소를 사용했다. 개별 방이 없어서 대방에서 함께 자고, 공용화장실을 사용하는 등 열악한 시설이었지만 그럼에도 연간 4000명의 체험객이 다녀간다"며 "인원이 더 늘어나면 좋겠지만 우선적으로 체험객 개인이 느끼는 변화는 확실할 것 같다. 프로그램도 내실을 다져 손꼽히는 템플스테이 운영사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수암 스님은 끝으로 기도와 나눔을 모토로 하는 화계사의 정신을 외국인스님들이 잘 이해하고, 대중에 회향하는 데 나서줄 것을 기원했다. 스님은 "승속과 이사를 떠나 너와 내가 더불어 함께하는 세상을 만드는 데 화계사 사부대중이 힘을 쏟겠다. 어린이부터 노인, 장애인과 비장애인, 내국인과 외국인 구별 없이 정토구현에 앞장서 희망이 넘치는 강북을 위해 정진하자"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BTN불교TV 불국토상조

부모님의 은혜는 끝이 없기에…
부처님 모시듯이 진심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생전 효도도 중요하지만,
부모님의 극락왕생을 염원하는 그 마음을 알기에
뜻하지 않은 그날, 불국토상조가 곁에 있겠습니다.

NAVER 불국토상조 를 검색하세요.
www.btnlife.co.kr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이 설립한 불국토상조
가입상담 1577-7675